

46억 들인 '울돌목 거북선' 1년째 방치

40여억원을 들여 관광 유람선으로 건조된 '울돌목 거북선'이 누적 적자로 인해 운항을 중단한 지 1년째 방치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월28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총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만든 울돌목 거북선은 지난해 9월 휴업신청을 한 뒤 1년이 넘도록 운항을 하지 않고 있다.

368급 울돌목 거북선은 총 길이 49m, 폭 10m로 173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순신 함대의 동선인 해남 우수영-진도 녹진항-울돌목-벽파진항 구간을 운항했지만, 1년째 손님을

35억 누적 적자로 운항중단...대책마련 시급 수요예측 실패...해남군에 인수 희망 '난색'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누적 적자가 35억 원을 넘어섰고 한해 운영비만 4억원에 달해 전남개발공사가 운항을 포기했다.

지난 2006년 전남도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연간 14만 6000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5년간 평균 탑승객이 22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명량대첩 축제를 하고 있는 해남군에서 거북선을 인수해 활용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배를 운항할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 등으로 연간 4억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운영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워 보여 명량대첩 축제가 열리는 해남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운항 첫 해인 지난 2008년 거북배의 역사적 상징성을 되살리기 위해 도민 등 130여명을 태우고 독도에 집안 조선 수군 위령제와 명량대첩 비담물·동해비담물 합수식, 해양소년단 독도선언식 행사를 펼친바 있다.

김정환 기자

인도네시아 지진·쓰나미 사망자 420명 달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북부에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규모 7.5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수가 최소 420명으로 확인됐다.

AP통신 등 외신은 구조당국을 인용해 "인명피해 규모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청장은 언론에 팔루지역에서의 사망자 수가 420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북부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후 1.5~2.0m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BNPB는 지진과 쓰나미로 최소 384명이 숨지고 540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날 오후 발표한바 있다.

수토포 푸르위 누그로호 BNPB 대변인은 이날 지진 발생 전날 낮부터 팔루 인근 해변에서 수백 명이 축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소재가 현재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난 당국은 또 지진으로 무너진 팔루의 한 호텔 잔해 아래 수십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해변 축제 현장인 팔루 시내에는 무너진 건물과 가옥, 시민들의 잔해로 뒤덮힌 채 여전히 불에 잡혀 있다. 38만여명이 거주하는 팔루에서는 해안 부근 강위에 세운 현수교까지 무너졌다.

당국은 여러 지역에서 사망자 보고가 접수되고 있어 며칠 동안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휴양지 롬복섬에서도 지난달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57명이 숨지고 4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4년 12월에는 서부 수마트라에서 일어난 규모 9.1의 강진이 부른 쓰나미로 10여개국 관광객 약 2만2천 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스라엘군 가자서 팔레스타인 주민 7명 사살

이스라엘군이 9월 28일(현지시간) 가자 국경에 몰려든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발포해 10대 2명을 포함해 7명을 사살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지난 3월30일부터 시작된 귀환 대장정 일환으로 와 시위에 나선 팔레스타인 군중을 향해 실탄을 발사해 505명을 다치게 했다.

가자지구 보건 관계자는 부상자 가운데 89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중에는 12살과 14살 소년이 끼여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당국은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군인에게 폭발물과 돌을 던져 부득이 실탄을 사용하고 공습까지 감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시위대가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 국경선 철책을 뚫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발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자지구에서는 9월22일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군이 유혈 충돌하면서 최소한 15명이 다쳤다.

이스라엘군의 실탄 발포로 총상을 입은 시위대 15명은 즉각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중상을 입었다.

8월17일에는 금요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국경 부근에서 팔레스타인인 2만여명이 참여한 시위 도중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2명이 사망하고 270명이 부상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이어진 귀환 대장정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최소한 191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사망하고 2만명 이상이 다쳤다.

독일서 아프간 난민 흥기난동 3명 위중

독일 남서부 리벤스부르크에서 9월 28일(현지시간) 흥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젊은 용의자가 이날 리벤스부르크 시내 마리엔플라츠(광장)에서 정육점용 예리한 도구로 세 사람을 찔러 중상을 입었으며 이중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순찰을 돌던 경찰이 현장으로 즉각 출동해 용의자를 제압 체포했다고 한다.

경찰은 나중에 내놓은 성명을 통해 피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19세 난민이며 무슨 이유로 행인을 공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명은 다만 아직 테러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는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배후를 자처한 크고 작은 테러가 잇달아 이번 사건도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을이 물든 하동북천 기차길 9월 29일 오후 경남 하동군 북천역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8 하동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장을 찾은 탐방객들이 레일바이크를 타며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 광주·전남 올해 3897명...매년 ↑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광주의 경우 1849명이 등록됐으며 전남은 2048명이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3년 385명에서 2014년 636명, 2015년 904명, 2016년 1144명, 지난해 1509명을 기록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403명에서 643명, 976명, 1275명, 1596명으로 증가했다.

성폭력을 다시 저지르는 재범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 2014년 42건이 재범이었지만 2015년 24건, 2015년 19건, 지난해 36건을 기록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각각 50건, 27건, 25건, 34건이 재범에 의한 성폭력 범죄였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8월 기준 경기도가 1만4196명(경기남부 1만554명·경기북부 36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만2049명, 인천 354명으로 수도권에 무려 83%가 집중됐으며 다음으로는 부산 3497명, 경남 3075명, 경북 2616명 순이었다.

또 소재불명자 93명 중 26명만 검거됐으며 현재 67명은 소재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진 의원은 "갈수록 강력성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실한 성범죄자 관리체제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성범죄자의 재범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확대, 징역년 초과 징역 10년 이하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확대 검토하는 등 사회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9월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위험요인 신고대상은 축제장·유원지·야영장 내 위험시설물, 등산로·보행로 파손, 낙석 위험, 불법취사나 소각행위 등 가을 나들이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 모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9월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62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54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26만7632건(42.9%) ▲신호등·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15만3080건(24.5%)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 7만2439건(11.6%)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슬람 국민들의 안전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보강해 신고자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캠핑, 지역축제 등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